

좌충우돌 · 시끌벅적, 청바지 입은 선생님의 미술일기



《백설공주를 죽이시오》 정효찬 지음 | 이기서 | 2022년 11월 12,000원

《백설공주를 죽이시오》는 지난해 경북대학교 중간고사 미술시험 문제이면서, 이 문제를 출제한 후 해직되었던 미술강사 정효찬 씨(32)의 강의일기다. 그는 고스톱 계산법, 키스 성공법 등을 기말고사 시험문제로 출제했다가 비난과 두둔을 동시에 받으면서 ‘한국의 키팅 선생’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미술개론 대신 미술치료, 패러디 제작, 코스프레 등 생활 속 예술의 개념을 학생들 스스로 가져오도록 유도했던 그의 분방한 수업방식이 영화〈죽은 시인의 사회〉속 키팅 선생의 그것과 닮아 있기 때문이다.

“수업시간에 빠졌거나 친구들의 발표에 귀기울이지 않았던 학생은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통해 그 시간에 배운 지식을 다시 떠올리고 즐거웠던 기억을 통해 미술에 가까이 갈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의 수업은 90퍼센트 이상이 학생들의 참여로 이루어졌다. 학생들은 가슴으로 느끼는 미술을 표현하면서 수업시간에 라면을 끓이기도 했고, ‘백설공주를 죽이라’는 문제에 “어제 죽이러 갔었는데 벌써 죽었던데요”로 시작하는 논술형 답안을 적어내기도 했다. 선생님의 제안대로 아이들은 한 학기 동안 문화를 가지고 노는 방법을 익혀나갔다.

“제 방식을 비판하는 분들의 심정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튀기 위해서 독특한 시험문제를 냈다는 오해를 벗고 싶었습니다. 단편적인 결과보다는 저와 아이들이 함께 한 ‘수업과정’을 책으



로라도 보여드리려고 했죠.”

그는 책을 통해 ‘엽기’ 적이라고 할 만큼 일반적이지 않은 시험문제와 수업과정을 낱낱이 공개한다. 오리엔테이션 시간의 ‘의자 당기기’ 퍼포먼스부터 얼굴에 검뎁을 발라 고갱의 〈타히티의 여인들〉을 표현한 학생들의 열정까지 선생님과 아이들의 강의실에는 신명이 넘친다.

“가장 중요한 건 학생들간의 팀워크죠. 그래서 평가를 할 때도 팀원간의 팀워크를 우선시합니다. 학점 때문에 양심과 우정을 버리는 학생들이 많던데 좀더 창조적인 발표방식을 택하면서 학생들 스스로 점수를 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현재 그는 한양대학교로 스카우트되어 ‘유쾌한 이노베이션’이라는 이름의, 확장된 미술의 이해를 다시 강의하고 있다. 경북대학교에서는 답안지를 놓고 아이들과 대화할 기회조차 없었는데 이번에는 아이들과 모여 서로의 답을 읽어보는 시간도 마련할 계획이다. 개론이 중요한 강의도 있지만 예술분야는 창조적 사고를 갖고 유

동적으로 변화하는 예술적 가치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이유로 그는 학점에 연연해하는 요즘 대학생들에게 ‘가슴을 예술적으로 가꿔가자’는 제안을 한다. 수업평가 때 학생 스스로 점수를 매기는 양심점수 평가제를 마련한 것도 그런 이유다. 그리고 최근에는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기 위해 비밀 학생평가단을 조직하기도 했다.

길창덕의 만화와 도널드덕을 좋아하는 그는 미술을 ‘개개인들의 표현을 나누는 것’이라 말한다. 그리고 그 표현들을 시종일관 시끌벅적하게 나누면서도 요점을 놓치지 않는다. 원시미술부터 그래피티(graffiti art · 벽이나 화면에 낙서처럼 긁거나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해 그리는 그림)까지 웃고 떠드는 와중에도 미술사가 보이니 책을 읽으며 ‘무조건 놀자는 책인가?’라는 걱정은 접어두는 게 좋다.

“‘백설공주를 죽이시오’는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것들, 우리에게 강요되는 생각들이 정말 진실일까를 의심하다가 착상한 문제입니다.” 정효찬 씨는 ‘엽기적’이지만 곧 ‘일반적’이 되어야 할 강의록에서 이런 결론을 제시한다. “많이 보고, 많이 느끼고, 많이 듣고... 더 기본적인 명제, 살아있자.” 그는 예술의 생명력이 자유로움에 있고 예술과 사람의 사랑이 방해받지 않으려면 우리 모두 ‘기존에 알고 있던 것을 새롭게 생각하고 의심해야 한다’며 예술이 곧 ‘다양성’이라고 강조했다. ■

취재 김정연 기자·사진 박신우 기자